잉크 · 종이도 품질인증 시대 !!!

기술표준원, 중요 기록물 보존향상 위해 보존용품 품질인증 실시

기술표준원은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관리가 필요한 중요 보존기록물들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종이, 잉크 및 필기구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2002년 6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소한 100년 이상 영구보존이 필요한 역사적인 편찬물, 전사, 영상매체 등 중요 보존기록물의 보존실태는 50년이 되지 않은 문서용지가 열화(熱化)와 황변(黃變) 등으로 낱장을 넘기기가 어렵게 되고 잉크가 퇴색돼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보존기록물의 관리상의 문제보다도 종이, 잉크 등 기록매체 및 재료의 품질이 장기간 보존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존기록물이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비용도 막대해 정부기록보존소 보유문서(57만권) 중 매년 약 10%를 복원하는데 약 50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요 도서관 등 민간부분까지 포함하면 복원비용이 수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이의 열화는 자연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면 부서지는 현상으로 종이의 주성분인 펄프의 분해 등에 의해 나타나며 황변현상은 종이가 누렇게 변하는 현상으로 종이에 포함된 산성물질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기술표준원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와 협의해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보존용품인증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된 보존용품인증요령에 따르면, 준영구 이상의 정부기록문서에 사용하는 문서용지, 잉크 및 필기구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장이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제품과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장기간 보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별이 용이한 인증표시(∞)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정부조달물품 구매 시에 보존용품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 주요 정부문서에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합당한 인증제품만을 보존용으로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역사적인 기록물을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서는 문서용지에 대한 미국 · 캐나다의 ∞ 마크제도(ANSI), 영국의 보존용 잉크 규격(BSI), 오스트레일리아의 AQ(Achival Quality), 미국의 PAT(Photographic Activity Test)제도 등이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종이, 잉크 및 필기구 외에도 사진, 필름, 디스크, 앨범, 라벨 등 일체의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보존성 향상을 위한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품질인증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요 기록물의 보호관리와 복원기술 개발해 소요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05>